WEB CONTENTS

2024년 04월 27일 01시 15분

여수시

목차

목차 2
사도 3
바다에 모래를 쌓은것 같은섬 3
사도 바닷길 3
위치 4
시내버스 안내 4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을 가기위해 중앙시장 하차(사도) 4
백야선착장을 가기위해 백야리 하차(사도) 4

사도

바다에 모래를 쌓은것 같은섬

사도는 바다 한가운데 모래로 쌓은 것 같은 섬, 모래 '사(沙)'와 호수 '호(湖)'를 써 사호(沙湖)라 부르다가 행정구역 개편 때 사도라 하였다.
모래가 아름다운 사도가 입을 벌리면 날카로운 이빨들이 드러나는 공룡들의 천국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발견된 공룡은 앞발은 들고 뒷발로 걷는 조각류에서부터 육식공룡, 목이 긴 초식공룡 등 종류가 다양하다. 국내에서 가장 길다고 알려진 43개의 84m 공룡 보행렬이 있는 추도를 비롯해 사도 일원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천연기념물 제434호) 총 3,546점으로 사도 755점, 추도 1,759점, 낭도 962점, 목도 50점, 적금도 20점이다.
사도는 해마다 영등 · 백중사리 때면 인근 추도와의 사이에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도 · 추도 · 중도 · 증도 · 장사도 · 나끝 · 연목 등 7개의 섬이 'ㄷ'자로 이어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사도 바닷길

사도해수욕장 → 사도마을 → 중도 → 양면해수욕장 →거북바위 →용미암 →증도 →중도 →해안산책길 →공룡테마공원 (2시간 30분소요/ 2km(왕복))

하화도에서 20분정도의 거리에 있는 신비의 공룡섬 사도. 선착장에서 마을 뒤편 언덕의 산책로를 걷는다. 벼랑 위로 산책로가 이어 지는데 벼랑 아래는 책상만한 혹은 장롱만한 둥글둥글한 바위들이 가득 해안을 메우고 있다. 바위의 생김새가 꼭 공룡알이다. 화산폭발 때 생긴 부산물이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공룡화석지가 나온다. 중도로 건너가는 사도교 아래가 공룡의 놀이터로 공룡발자국 화석과 물결무늬 화석인 연흔이 보인다. 구름다리를 지나면 중도와 시루섬을 잇는 백사장이 양쪽으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양면해수욕장이며 이곳을 지나면 기암괴석의 천국인 시루섬이다. 입구의 거북바위는 거북선과 비슷한 크기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발명한 모티프가 됐다는 전설을 안고 있다. 사람의 옆모습을 닮은 단발머리 소녀바위와 얼굴바위를 돌아 들어가면 용꼬리 바위, 용미암이다. 시루섬 최고의 걸작품인 30여m 길이의 용미암은 유독 푸른색을 띤 바위가 꼬리를 바다에 드리운 채 바위섬에 머리를 묻고 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용미암의 머리가 제주도의 용두암이라고 말한다.

사도해수욕장에서 사도마을로 향한다. 사도마을 안 골목은 아름다운 돌담들로 되어 있는데 돌로만 쌓은 '강담' 구조로서 돌의 크기와 형태는 일정치 않고, 평평한 것부터 둥근 것까지 다양하며 사도의 담장은 추도의 담장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중도와 시루섬을 잇는 백사장이 양쪽으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양면해수욕장이며 이곳을 지나면 기암괴석의 천국인 시루섬이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발명한 모티프가 됐다는 전설을 안고 있는 입구의 거북바위는 거북선과 비슷한 크기이다. 사람의 옆모습을 닮은 단발머리 소녀바위와 얼굴바위를 돌아 들어가면 용꼬리 바위, 용미암이다. 시루섬 최고의 걸작품인 30여m 길이의 용미암은 유독 푸른색을 띤 바위가 꼬리를 바다에 드리운 채 바위섬에 머리를 묻고 있는데, 용미암의 머리가 제주도의 용두암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용미암에서 다시 중도로 돌아 나와 해안산책길을 따라 걸으면 공룡테마공원이다.

위치

시내버스 안내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을 가기위해 중앙시장 하차(사도)

시내버스	2, 6, 7, 18, 21, 22, 23, 24, 24-1, 25, 25-1, 26, 26-1, 27, 28, 29, 31, 32, 33, 34, 35, 36, 37, 38, 52, 61, 68, 73, 76, 80, 88, 89, 90, 91, 92, 93, 95, 100, 102, 103, 105, 106, 109, 111, 112, 115, 116, 555, 666, 999번

백야선착장을 가기위해 백야리 하차(사도)

시내버스	28번

여객선 정보 바로가기

COPYRIGHT(C) BY YEOSUCITY. ALL RIGHT RESERVED.

YEOSU CITY

Web Contents

여수시